

# 공공보건의료선교, 덤으로 가을 여행!

10번째 하노이 소식

## 제 16 회 의료선교대회

2년마다 열리는 의료선교대회가 인천주안장로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올해도 1,000명이 넘는 의료인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차세대에게 의료선교의 정신을 잘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 공공보건의료선교



최근 들어 공공의료 인력, 자원과 협력하여 의료선교사역이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 더 확대되리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다양한 사역 현장(WHO, KOICA, KOFIH, NGO, 사역지 등)에서 10년, 20년 경험을 가진 사역자들이 [공공보건의료선교]라는 주제로 포럼을 가졌으며, 앞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경험을 공유하고, 연구하고, 구체적인 역할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양승봉은 네팔의료보험사업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2007년 [네팔의료보험연구소]로 시작한 의료보험 사업이 2010년부터는 KOICA [의료보험구축사업]으로 현재까지 1, 2, 3차 사업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의료보험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77개 군 중 에서 46개 군에서 시작하였으며, 인구의 7%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현재 네팔 정부의 계획은 2030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완성되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 대해 지극히 작은 목소리밖에 없었던 네팔에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여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누가회 선교부 힐링캠프



의료선교대회 후 누가회선교부에서 의료선교사 9 가정을 초대하여 힐링캠프를 인천 대부도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가졌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50명 정도의 식구들이 먹고, 놀고,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천국의 교제를 즐겼습니다. 다들 멀리 있고, 몇 년 만에 만나도 가족처럼 교제하는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저희는 지난 26년의 선교 여정의 시작과 앞으로의 방향을 성찰하는 선물을 덤으로 받았습니다.

## 한국 시월의 가을 스케치!





일 년 만에 부산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뵈고 왔습니다. 93세이신데 점점 옛 기억을 잊어가고 계셔서, “이번에는 우리를 알아보실까?”하는 약간의 조바심을 가지고 뵈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도 축복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12년 전에 먼저 하늘나라에 간 한의사이며, 목사였던 고 문충모선생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를 하였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 밑에서 큰 아들 영찬이는 아빠처럼 목사가 되어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둘째 영균이는 아빠가 졸업한 경희한의대를 졸업하여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지면상 다 나누지는 못하지만 이번 10월 한국 방문은 후배, 친구들, 동역자들과의 만남, 나눔, 환대와 선대로 행복한 기운에 충만하여 하노이로 돌아 왔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이자 후원자인 이태희,이경애 부부의 지속적인 사랑에 감사도 하고, 베트남에서 맛보기 어려운 명계, 회, 생선 구이, 무화과, 포도 등 알록달록 즐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10월 가을, 아름다움의 완성은 단연 사람들과의 만남과 사랑의 나눔이었습니다.

### 제 3 회 베캄 지역부 모임



베트남-캄보디아 고신 지역부 모임이 하노이에서 있었습니다. 한국 노회와 교제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 의학영어클럽

하노이 의과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의학영어클럽이 시작되었습니다. 15년 된 동아리로 본과 1,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약 20명 정도 참석하는데 매 주 토요일 2 시간 반 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영어가 모국어인 한국 의사 4명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자원 봉사자로 미국사람, 브라질 사람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제 2 회 베트남 CMF 수련회



베트남 기독교사회 제 2회 연례 수련회가 1박 2일(9월 28-29일)로 열렸습니다. “Christian Medical Fellowship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국누가회 김민철선생님이 하루 일정과 아버님 병환중에도 날라 오셔서 강의로 섬기시는 헌신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룹으로 심도 있게 토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베트남 CMF가 걸어갈 것인지 방향들이 정해지기도 하였습니다. 김민철선생님이 한국인터서브 이사장이기도 하신데, 하노이에 있는 인터서브 식구들에게 밥도 사주시고^^ 이사장님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한국어 강의와 영어회화클럽(Spotlight)

신경희는 이번 학기는 격주로 금, 토 한국어 강의를 합니다.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강의에 학생들이 열광합니다. 개인적인 사귄까지 연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어회화클럽은 삶의 의미를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어 영적인 삶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로 소수의 참여자들과 카페에서 모임도 가졌습니다. 다들 직장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증진 시키고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흥미진진합니다.





### 하노이 한인교회 청년부 특강



하노이 한인교회 청년부가 60명 정도 모이는데 이들이 [교회와 베트남 사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특강을 2번 하였습니다. 저 자신의 청년의 때에 경험한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낮은 곳으로 향해 가는 삶(눅 14:11)', 두 번째 강의는 '한 알의 썩어지는 밀알(요 12: 24-26)'이 되자고 했습니다. 강의 후에는 그룹으로 나누어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하노이 BAM



미국에서 제약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안창호장로님이 하노이 비즈니스사역 모임에 오셔서 교제를 하였습니다. 내년 초에 작은 비즈니스 학교를 하노이에서 개설하려고 합니다.

### 세 아들



둘째 경모가 6개월간의 힘든 훈련을 마치고 대형비행기를 조종하는 면허를 받았습니다. 큰 비행기는 미국이나 유럽, 뉴질랜드를 갈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있는 뉴질랜드에도 비행을 가서 함께 어울리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잠깐 만나는 즐거움과 헤어지는 애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함께 손 모아 주세요

1. 신경희의 한국어강의와 영어회화 클럽을 위한 준비와 관계 개발에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2. 베트남기독교의사회(Christian Medical Fellowship Vietnam)의 9월 수련회가 은혜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합니다.
3. 의학영어클럽이 잘 진행되게 하소서
4. 한글본 매일성경 발행과 말씀 묵상 심화 과정 등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와 베트남 교회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5. 진모&다은 부부가 인격적인 사랑과 믿음의 멘토들과 공동체를 만나게 하소서
6. 경모가 사랑의 성품으로 믿음이 자라가며 아버지께서 짝지우시는 사랑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7. 인모가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만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함께 자라게 하소서

2019년 10월 30일

양승봉, 신경희 드림